

# 北 의견 물었나 안물었나... 그날의 진실은?

## ■ 북한과 사전 상의 여부

회고록	이재정(당시 통일장관)
2007년 11월 18일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 의견 확인해 보자 제안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수용	“사실 무근” 김만복( ~ 국정원장) 백중천( ~ 안보실장) “말도 안돼”

## ■ 인권결의안 결정 시기

회고록	이재정
천호선 브리핑 “20일 저녁 대통령이 유엔대북결의안 종합 상황 등 보고 받고 수용. 방침 결정”	15일 다수 ‘기권’ 결론 김경수(文 전 대변인) 16일 결정, 20일 보고 천호선(당시 靑 대변인) 16일 기권 결정 후 21일 최종 발표

## ■ 송민순에 전달된 北 쪽지

회고록	이재정
北 “남북관계 위태로운 사태 초래할테니 책임있는 입장 취하길 바란다” 입장 통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서로 연상 백중천 국가정보원 대북 동향 보고

### 참여정부 인사들 2007년 11월 15~20일 엇갈린 발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난 2007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 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 발언을 중심으로 엇갈리는 부분을 정리했다.

◇북한에 미리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 결정하고 북에 통보했나=논란의 핵심 사안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18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자신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던 와중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반면, 다른 참여정부 외교·안보인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전 의원은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한 3차례 회의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는 발언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자신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지고 제안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부인했다. 백중천 당시 안보실장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으로 문 전 대표 대변인이었던 김경수 의원은 “북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었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당시 남북정상회담 직후 다양한 대화 이뤄지던 시점에 기권 입장을 북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점은=결정 전 상의인지 결정 후 통보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1월20일 북한의 입장을 백중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11월21일 브리핑에서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중천 안보실장으로부터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으며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고 돼 있어 회고록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 인사인 김경수의원은 “16일에 결정이 됐지만, 외교부 장관이 편지도 올리면서 계속 주장을 하니 입장을 발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20일 저녁에 북한 반응 등을 종합해 다시 보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 입장을 18일 안보관계장관회의 후 대북 통보했다고 기억했다.

이재정 전 장관도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날 이

미 ‘기권’이 다수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져 대통령의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는 당시 청와대 브리핑 내용과 관련 “16일 회의서 기권을 결정했지만 송 장관의 지속적인 결의안 찬성 주장으로 21일에 최종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이 건넨받은 쪽지는 북한이 통보한 입장인가=송 전 장관은 11월20일 백중천 당시 안보실장으로부터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안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노 대통령에게 있는 자리에서 쪽지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중천 당시 안보실장은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받은 팩스 문서를 건네준 것으로 국가정보원 대북 동향 보고였다”고, 이재정 전 장관은 “북한 편지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서로 연상된다”고 각각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회고록 정국’ 박지원 존재감

“박대통령-김정일 4시간 대화 잘 알아” 색깔론 제동  
“文, 말 바꾼게 문제... 국민 앞에 사실 밝혀야” 일침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송민순 회고록 정국에서 연일 여야를 견제하며 국민의당 존재감을 살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민순 회고록’ 파문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공세와 관련,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4시간 동안 나는 대화와 특사 요구 여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당의 색깔론 공세에 제동을 걸었다.

“도 냈다”고 공개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지 말게 한 박 대통령’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가 계속 3일 동안 말씀을 바꾸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결국 ‘일구삼언’”이라며 “문 전 대표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북한과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고, 또 주권국가로서 결정하고 외교 차원에서 북한에 통보를 해줄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런 걸 정리를 못하고 3일 사이에 말을 바꿔버리니 신뢰를 상실하고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송민순 “모든 내용 사실이다”

“새누리, 폭로만 몰두... 과거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8일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자신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 “다 사실”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썼겠느냐. 공직에 30여년 있던 사람이 소실감이 없겠느냐. 책임을 지겠다는 확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 집필 배경에 대해 “제가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를 돌

이켜보고 미래를 가는 길, 앞으로를 PROSPECT(전망) 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이, 그것(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생각해야지)”라면서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 전 장관은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무슨 과거 캐는 폭로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스스로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했던 것에 지금까지라도 한번 되돌아보는 자제가 필요하다고”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文 “내가 앞서가니 두려워 생긴 일”

### 충북 방문 지역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여론의 파장 공세에 대해 “문재인이 가장 앞서가니까 저 문재인이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충북 괴산에서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관계자 및 당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아마 걱정도 좀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시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더해 최순실, 우병우 등 권력실세들의 국정농단 비리,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문제 등을 가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

해 색깔론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한 새누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이 저의를 다 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안보가 얼마나 든든했나. 김대중 정부 때 두 차례의 서해교전을 겪었는데, 연평해전 때 기습당했지만 굳건히 패퇴시켰고, NLL(북방한계선) 한 발짝도 못 내내왔다. 철통같이 NLL(북방한계선)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지금 나올 만큼 나왔으니 더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일 오전 충북 진천군 충북혁신도시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 커피전문점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JP 청구동 자택은 대권으로 가는 길목?

### 반기문 이어 안희정 방문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7일 ‘총청의 맹주’인 김총필(JP) 전 국무총리의 서울 청구동 자택을 찾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지사가 김 전 총리와 만남에 따라 안지사의 대권행보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지사 측 박수현 전 의원은 18일 “1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여 동안 더민주 조승래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두 분이 만났다”며 “처음 찾아본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찾아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날 회동에서 김 전 총리는 회동에서 안지사에게 지사 업무에 대한 격려 등 덕담을 전했고, 안지사는 김 전 총리의 건강 등 안부를 물었다고 박 전 의원은 전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지역 선배 원로들을 찾아뵙는 통상적 일정”이라며 이번 회동을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김 전 총리는 앞서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지난 5월 자택에서 만났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민주 조승래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두 분이 만났다”며 “처음 찾아본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찾아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